

저는 그 친구들에게 영어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보답은 커녕 작별인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작별인사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 친구 때문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텐데,

저는 16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추억과 친구들이 너무 그리고 미안해요.



친구들을 꼭 다시 만나서

16년전의 오해를 풀고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로렌과 제라드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